中. 티베트도서관, 고서 온라인 공개

2만여 권 이상의 희귀본 무료공개

12세기부터 20세기의 고서 비접촉 고화질스캔 활용해 아카이브 플랫폼 개방진행

김민재 객원기자



2009년, 티베트 도서관의 고서보호센터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고서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10년간 연구원은 모든 고서를 보존하기 위해 120만 평방 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을 조사했다.
사진출처=신화통신

고찰들의 장서각에서 잠자고 있던 고서들이 깨어났다. 4월 25일 중국의 '신화통신'과 '중국망' 등의 주요 언론들은 라싸에 소재한 티베트 도서관이 온라인을 이용해 그동안 수집, 조사한 희귀 고서들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라싸에 소재한 티베트 도서관 고서보호센터는 2009년부터 티베트에 전해지는 각종 고서와 필사본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는 티베트 자치구와 각 성의 티베트 자치현에 소재한 사찰들이 소장한 고서들은 물론, 각 기관과 개인이 소장한 희귀 고서들에 대한 목록작성과 디지털 아카이빙이 포함됐다.

그 결과 4월 21일부터 티베트 도서관은 12세기부터 20세기에 걸친 티베트의 고서들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게 됐다. 이용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책들을 검색, 복사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이번 공개는 티베트의 고대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공개된 서적은 2만 원 이상에 달한다.

라싸의 고서 애호가 뀐다 씨는 "아들의 도움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희귀고서 공개에 대한 여러 기사를 읽었다. 직접 사용해보니 티베트 도서관의 희귀 고서 공개 포털은 원하는 책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고서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혁신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티베트 전통 문화를 보호하는 새로운 방법이 열렸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고서보호센터의 부소장 팬파체링은 "올해 업로드된 귀중본들은 불경과 논서, 고승들의 전기를 비롯해 역사서들과 개인 문집들까지 망라되어 있다. 특히 고승들의 전기가 주로 수집됐는데 이를 통해 고대 티베트의 사회, 경제, 민속문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정보를 알 수 있다. 이전에는 복잡한 열람신청 절차로 소수의 학자만이 이런 희귀본들을 접할 수 있었으나 이제 세계 모든 이들이 이용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10년이 넘게 조사를 진행하여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앞으로도 숨어있는 고서들을 찾고, 복원하며, 디지털화 하는 작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티베트 도서관의 고서보호센터는 귀중한 고서들을 보전이 취약한 문화자원으로 간주해 비접촉 고화질 스캔 등 첨단 기술을 대거 도입해 도서 훼손을 막았다. 또한 서지학자와 전문가들이 스캔하는 동안 서책에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전 과정을 감독했다. 또한 디지털 아카이빙을 담당한 전문가들도 공개된 도서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책의 원본 사진을 대조하여 처리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채택했다.

펜파체링은 "희귀 고서 공개포털은 티베트 고서의 온라인 공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티베트 전통문화 고전의 보존과 문화유산을 위한 탄탄한 토대로 비슷한 포털사이트가 많이 개발되어 순서대로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희귀 고서 공개포털은 지난해 4월 25일 시범운영 후 10만 명에 가까운 방문객이 몰리면서 도서관 홈페이지 사상 최고 접속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美시카고대, '불교와 헌법' 학제 도입

세미나와 워크숍 등으로 구성돼

美시카고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 세계 학자들이 불교와 헌법간 관계를 고찰하는 학제를 도입했다. 시카고 대학은 4월 19일 교내 언론을 통해 불교와 헌법을 비교연구한 세미나에 대해 보도했다.

'불교와 헌법' 비교강좌는 인류학, 정치학, 종교, 법학 분야 학자들이 진행하는 것으로 청중에게 발표할 수 있는 워크숍과 학생들을 위한 겨울 세미나 등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워크숍에는 전세계 10여 개국의 학자, 공무원, 대학원생 등이 참여했으며 온라인 세미나에는 로스쿨, 신학대학원, 사회과학부 학생 2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워크숍과 세미나는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등 다수 불교 국가의 세속적인 법치주의에 대한 서구시각이 발표됐으며, 서구 법학자들의 해석에 대한 불교권 국가 학자들의 날선 비판이 함께 이뤄졌다.

워크숍에서 학자들은 출가자의 역할이 헌법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헌법 개혁은 불교 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교와 헌법 연구의 기존 모델이 아시아에서 불교와 헌법의 역학관계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논의했다.

또 세미나에서는 법학생들의 활발한 불교에 대한 질문이 오갔다. 세미나에 참석한 시카고 법대 3학년 레이첼 레보비츠는 "이 수업에서 정말 괄목할 만한 점은 불교 지식이 없지만 법치주의에 관심이 많은 법학생 그리고 법 지식이 전무한 여성 출가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논점을 가지고 토론한 것"이라며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참여할 수 있었다. 탈서양적인 시각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카고 법대 국제법학 긴즈버그 교수는 "최근 미얀마 군사 쿠데타에 출가자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일부 민족주의 출가자들은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 탄압에 적극 가담하기도 했다"며 "불교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헌법 정신 발현과 정치참여에 나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승가는 아시아 국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일부 국가에서는 투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자들의 목소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불교적인 생각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티베트 노승, 37일간 사후삼매 들어

평생 밀교수행에 힘써, 외국인 제자도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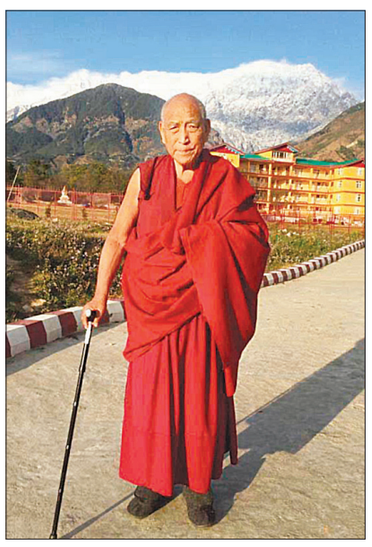
의식 남은 삼매 '툭담' 겐뒨 체링 스님 사례 티베트 불교권서 보고

티베트 불교에서는 수행이 원만한 수행자가 입적 후에도, 미세한 의식이 남아 삼매에 들어있는 현상을 '툭담'이라고 한다. 최근 인도에서 한 달 넘게 툭담에 들었던 스님의 소식이 전해 화제다. 4월 20일 '티베트 넷'은 툭담에 들었던 겐뒨 체링 스님의 이야기를 전했다.

툭담(사후삼매)이란 티베트어로 '마음이 삼매에 들었다'는 뜻으로 의학적으로 사망판정을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신이 부패하거나 사후 경직이 발생하지 않는 등의 현상을 말한다. 티베트 불교문헌에 따르면 툭담에 든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얼굴에 낯빛이 돌고 체온이 유지된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특히 티베트 불교권의 각 지역에서 여러차례 툭담에 든 수행자들에 대해 보고됐다. 대만과 인도, 티베트 자치구 등지에서 각각 툭담이 보고 됐으며, 인도에서는 출가자가 아닌 재가 수행자 가운데 툭담에 들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에 있어서,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천명해 이미 십여 년 전부터 툭담에 든 시신들에 대한 조사를 허용했다. 지난해 여름 대만에서 28일간 툭담에 들었던 잠빠갸초 스님은 조사 중에 미세한 뇌파가 활동중인 것으로 전했다.

이번에 툭담을 보인 스님은 인도 다람살라에 소재한 규뙤사원의 겐뒨체링 스님이다. 스님은 지난 3월 10일, 세납 87세, 법랍 76세로 입적에 들었다. 겐뒨체링 스님은 1935년 동부 티베트의 마르캄 지역에서 태어나 10세에 출가했다. 이후 1959년 중국의 침공을 피해 인도로 망명한 후 평생을 밀교수행과 의례를 보전하고, 중국의 침공으로 흩어진 불교문헌의 정리와 편찬에 힘썼다.



37일간 툭담에 들어간 겐뒨체링 스님.
사진출처=티베트넷

겐뒨체링 스님은 생전 일반적인 티베트의 전통강원 체계를 수학하지 않고, 주석사찰인 규뙤사원의 가풍을 따라 불교의례, 작법, 만다라 조성 등의 밀교수행과 명상에 주력했다. 그 결과 밀교학 박사에 해당되는 '악탐빠(Ngaglampa)' 법계를 받았다. 강원체계를 따르지 않고 악탐빠를 품수한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살아생전 밀교의례에 정통한 스승으로서 다수의 외국인들을 포함해 많은 학인들을 지도한 것으로 전한다.

스님께 수학한 한 일본인 제자는 "스님은 살아생전 '규뙤사원의 가풍을 잇고자 한다면 이 분외엔 선지식이 없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밀교의 세밀한 부분까지 정통했던 스승이셨다"고 회고했다.

스님이 입적한 3월 10일, 제자들이 장례절차를 준비하던 중 시신이 경직하지 않고, 체액이나 혈액이 흘러나오는 등의 사후 증세가 없는 것을 확인하면서 툭담에 들었음이 밝혀졌다. 법구는 생전 주석하던 방의 침대에 누여진 채 수하던 가사로 몸을 덮어줬을 뿐 일체의 방부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입적에 든 지 37일 후 시신이 굳기 시작해 툭담에서 떠난 것이 확인 되면서 익일 규뙤사원의 다비장에서 다비식이 이뤄졌다.

김민재 객원기자

泰불교계, 코로나 사망자 화장 제공

국립불교사무소 화장 명령에 사찰 동참

방콕포스트(Bangkok Post)는 4월 23일 태국 국립불교사무소(NOB)가 사찰에 코로나19 사망자의 화장서비스 시행에 대한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NOB의 나롱 송 아롬 이사는 방콕포스트 인터뷰에서 "NOB는 사찰들과 협력해 코로나19 피해자들이 마지막 의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태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대부분이 확산이 심각한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장례절차를 대부분 생략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조차 장례 집전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방콕포스트는 코로나19 위험지역에서 있었던 화장에 대한 논란도 소개했다. 화장을 위해 고향에 시신을 운송했을 때 지역민들이 반대하여 결국 사망한 곳으로 시신을 다시 가져간 사례다.

이에 대해 NOB는 고위험 지역 사람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에 따라 적절한 장례 절차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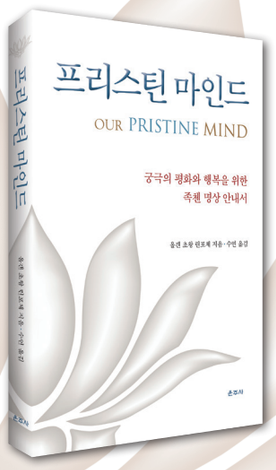
페이스쉴드를 쓰고 탁발 중인 태국 스님들.
사진출처=방콕포스트

하지만 태국 사찰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반발없이 따르고 있다. 큰 사찰인 왓파이롬(Wat Phai Lom) 측은 시신을 올바르게 취급하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사찰에 따르면 시신들은 누수 방지 비닐로 쌓여 봉인되고 관은 소각로에 넣기 전에 소독된다.

여기에 사찰 종무원들은 소각로로 시신이 가기 전 운송차량과 관을 엄격하게 소독하며, 대중들이 사용 가능한 화장실 등 공공시설도 집중 소독된다. 이미 왓파이롬에서는 5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화장됐다.

노덕현 기자

닝마파 및 족첸 법맥의 지도법사인
올걘 초왕 린포체의 가르침!
프리스틴 마인드



처음 명상의 여정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숙련된 수행자가 될 때까지, 그리고 점차 완전히 깨우칠 때까지, 명상의 모든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북!

우리 삶의 일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의 행복에 들어서도록 이끌어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다.

올걘 초왕 린포체 저 / 수연 역 / 신국판변형 / 328쪽
값 17,000원

『화엄경』 주석의 결정판,
청량국사의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

『청량국사화엄경소초』 11~17
세주묘엄품世主妙嚴品 ①~⑦



이 책의 완역은 한국불교 교학의 일대 쾌거이자 자긍심이다!

청량 징관의 『화엄경소초』는 80권본 『화엄경』에 소 60권, 초 90권을 붙인 방대한 분량에, 대소승의 경론은 물론이고 유가와 노장까지 포섭하여, 가장 뛰어난 『화엄경』 주석서로 꼽힌다.

이 시대 화엄종주 해인정사 수진 스님이 원문의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번역하고, 역대의 「사기」들을 총망라하여 상세한 각주를 달았다.

청량 징관 찬술 / 관허 수진 현토역주 / 신국판양장
7권 143,000원 (낱권 판매 가능)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